

## 윤선도가 반했던 천혜의 풍광·풍요의 바다 ‘자연이 준 선물’



고산 윤선도가 아름다움을 노래한 완도 보길도의 보옥마을. 하늘로 솟아오른 보옥산이 등직하게 마을을 지키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찾아오시는 길

▶승용차  
한남 IC → 경부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동서전분기점) → 서영암IC → 영풍교차로(월출산, 성전방면) → 신제교차로(독천방면) → 해남교차로(완도, 해남방면) → 완도군 → 화흥포항 → 노화도(동천항) → 보길도 → 보옥마을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 완도공용터미널(5시간) → 완도공용터미널 화흥포항 셔틀탑승(15분 이동) → 노화도 동천항 여객선 탑승(45분 이동) → 동천항 여객터미널 하차 → 택시 탑승(40분 이동) → 보옥마을

▶열차  
KTX용산역 → 광주 송정역(1시간 32분) → 광주 송정역 정류장 좌석02 버스 승차(40분 이동) → 광천터미널 정류장 하차 → 해남종합버스터미널(1시간20분 이동) → 해남버스터미널 정류장 사구미 방면 버스승차(2시간6분 이동) → 땅끝마을 정류장 하차 → 땅끝여객선터미널 산양항 방면 여객선 탑승(30분 이동) → 택시 탑승(40분 이동) → 보옥마을



보옥마을의 명물인 공룡알 크기의 몽돌이 늘어진 ‘공룡알 해변’.

‘윤선도 원림’ 펼쳐지고 보옥산 오르면 보길대교·마을 한눈에  
특산물 ‘낭장 멸치’ 말리는 가을이면 마을은 온통 은빛 세상  
‘공룡알 해변’ 명물...맑은 날 망쫄전망대에선 제주도 보여

“동풍이 건듯 부니 물결이 곱게 일렁이네/뭇 달아라 뭇 달아라/동호를 돌아보며 서호로 가지구나/지국청 지국청 어귀여차/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다가온다”

고산 윤선도가 완도 보길도에서 머무르며 지은 연시조 ‘어부사시사’의 한 대목이다. 윤선도는 65세 되던 해 가을 벼슬을 버리고 보길도 ‘부용동(芙蓉洞)’에 들어가 한적한 나날을 보내며 완도의 한적한 섬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그가 시간여행을 하고 이곳을 다시 찾았다면 400년에 걸쳐 변함없는 풍광에 감탄했을 법하다.

완도 보길도는 고산 윤선도 선생의 숨결과 천혜의 아름다운 풍광 덕에 대한민국에서 지명도가 가장 높은 섬 중 하나다.

보길도 최고 명승 ‘세연정(洗然亭)’을 중심으로 낙서재와 동천석실 등 3곳을 잇는 내부 안쪽 수심만평의 산림 ‘윤선도 원림’도 펼쳐져 있다. 보길도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 날카롭게 솟은 보옥산은 보길면 보옥마을의 자랑거리다. 해발 195m이지만 여느 산보다 높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뽕죽산’으로 부른다. 이곳에서 는 지난 2008년 보길도와 노화도를 잇기 위해 개통한 보길대교와 마을이 한눈에 보인다.

노화도는 국내 최초로 전복 양식을 시작한 ‘부자 섬’이지만 보옥마을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멸치 말리기로 분주한 요즘 보옥마을의 널따란 곳이라던 어디든 은빛으로 물들어 있다. 보길도 해역에도 곳곳에 전복이 자라나고 있지만 유일하게 전복가 두리 양식장이 없는 곳이 바로 보옥리다. 보옥리 앞바다는 조류가 세고 파도가 높아

전복 양식을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다. 때문에 유일하게 멸치 어장이 주민들의 생계수단이다. 45가구 중 절반 이상이 멸치잡이를 하고 있으니 멸치는 주민들에게 삶 그 자체나 마찬가지다.

이곳 주민들은 여느 멸치와 달리 ‘낭장 멸치’라고 부른다. 입구가 크고 끝은 좁은 사각뿔 모양의 자루그물인 ‘낭장망 그물’을 조류가 빠른 협수로에 설치해 멸치를 잡는다. 그물 이름에서 딴 이름이 어느새 보옥마을의 간판 특산품으로 굳혀졌다.

보옥마을에 시집와 40년째 멸치로 자식 농사를 지은 김영단(62)씨는 “멸치의 생명은 신선도”라고 말했다. 항구와 멸치 없는 곳에서 멸치 삶는 길이 모락모락 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보옥마을 어민들은 멸치를 신선하게 포장하기 위해 새벽에 멸치를 잡고 즉시 어장과 가까운 곳에서 이를 삶는 과정을 반복한다. 김씨는 “예전에는 나무를 때서 가마솥에 멸치를 삶았지만 지금은 자동화 공정 덕분에 1분여 남짓이면 삶아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청정식품을 운영하는 정춘배(60)씨는 “바빠 죽을 지경”이라고 엄살을 떨지만 모처럼 돌아온 대목에 입가에 미소가 가지 않는다. 정씨의 작업장은 색깔이 하얗고 깨끗한 낭장멸치가 하루 200상자씩 포장해 내놓고 있다. 그는 진한 바다 내음이 묻어나는 멸치를 두 손 가득 들어보이며 “풍년이든 흉년이든 해를 거르지 않고 가을이면 햇멸치를 잡아올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을 향해 골목을 따라가다 보니 공룡알 해변이 눈앞에 펼쳐졌다.



보옥마을의 특산물인 낭장멸치. 가을이 되면 멸치를 삶는 연기가 마을을 휘감는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들던 대로 공룡알 해변의 돌은 여느 몽돌과 같이 둥글지만 그 크기가 자갈이 아니라 공룡알 정도다. 뒤뚱거리며 해변을 걷다 보니 이곳 몽돌처럼 모난 성품까지도 둥글둥글해지는 기분이다.

해변에서 만난 김임철(84)씨는 치열했던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36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한가로운 나날을 지내고 있다. 자신만의 산장을 지어 노후를 보내고 있는 그는 가장 좋아하는 산책로로 공룡알 해변, 보옥산 그리고 우암 송시열이 자신의

귀향길 심정을 한탄한 시를 새겨 놓은 ‘글썽바위’를 꼽았다.

“서해의 일몰을 볼 수 있는 망쫄 전망대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추자도와 제주도가 바로 보인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마을이 남향이라 사계절 따뜻한 햇빛을 맞을 수 있다”고 덧붙인 그는 “한 번만 와도 보옥의 진가를 알아보고 세 번 오면 이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은모래 해변·백련사터 등 볼거리 넘쳐 보옥산~예송리 7km 탐방로 조성 기대”

#### 김서일 어촌계장

“취향찬란한 서울 생활도 뒷전으로 만드는 것이 고향의 맛입니다. 우리 보옥마을은 그런 곳입니다.”

김서일(66·사진) 완도군 보길면 보옥리 어촌계장은 열일곱 상경했던 3년을 빼고는 평생을 보옥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그는 지난 2010~2011년 보옥리 이장을 맡고 올해까지 2년째 어촌계장을 맡으며 마을 일을 도맡고 있다. 마을 일에 대해서는 남다른 카리스마를 보여주지만 소문난 애처가이기도 하다. 한참 바쁠 때지만 아내(49)의 병간호를 위해 해남에 다녀온 그를 만났다.



김씨는 보옥마을의 매력을 ‘멸치’와 ‘자연’으로 압축해 표현했다. “보옥리 앞 바다에서는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전복이 나지 않지만 전국에서 찾을 만큼 맛과 품질이 우수한 ‘낭장멸치’를 매년 잡을 수 있다”며 “멸치는 우리 마을에 선물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서 높은 파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을 주민들의 심성이 느껴졌다.

보옥마을 인근에는 천연 갯돌과 상록수림을 자랑하는 예송리 해수욕장이 있다. 최근 보옥마을의 보옥산과 예송리 사이 7km를 잇는 탐방로가 조성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김씨는 “탐방로가 생기면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보길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곳의 관광자원을 즐길 것 같다”며 “바닷가 쪽으로 경로가 생기면 넓은 보옥리 앞 바다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중리 은모래 해변과 통리 솔밭 해변, 예작도, 남은사, 백련사터 등 보길도의 볼거리는 너무도 많다”며 당일치기로는 보길도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없다고 조언했다. 보옥어촌체험마을을 홍보 센터는 가족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숙박 시설을 5만원 정도의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미리 센터에 문의하면 보옥마을의 특산물 낭장멸치로 것갈을 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김씨는 보옥마을의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멸치 유통체계를 개선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멸치를 종류별로 자동 포장할 수 있는 선진화된 공정을 도입하고 어민 교육을 통해 판로를 넓히는 6차 산업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의 010-5067-664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전라남도 지정 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만나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이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에 귀어·귀촌하는 도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질 높은 특산물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만든 상품을 도시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도시민 누구나 전남 어촌을 찾아 맛있는 먹을거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그 외에도 1사1촌 협약 등 전남 어촌과 기업 음식업 등과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83-0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임 광 희

## 물비늘처럼 반짝이는 초록 숲... 돌담길 걸으며 추억속으로

태풍도 비껴가는 안전한 지형  
 전국 최대규모의 동백숲 절경  
 깨끗한 바다서 최상품 김 생산  
 고즈넉한 돌담길 7080 풍경 간직  
 산 좋고 물 좋은 초록빛 쉼터

국도 77호선을 따라 완도 군외면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삼두마을 뒤쪽으로 멀리 나뭇잎이 반짝거리는 산이 보인다. 소나무, 참나무가 빼곡한 여느 산과 다르게 삼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은 진한 녹색 옷을 입고 알 수 없는 윤기를 품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동백숲이다.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는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동백숲, 깨끗한 바다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김, 태풍 등 자연재해도 비껴가는 지형조건 덕에 완도에서도 살기 좋은 마을로 손꼽히는 곳이다.

수산업만이 아니라 배는 물론 고추·참깨·콩 등이 잘 자라 풍족하고 여유로운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고령화를 걱정해야 하는 여느 마을과 달리 삼두마을에는 젊은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 마을 주민 총 253명 중 만 50세 미만이 71명(28%), 14세 이하도 25명에 달한다.

삼두리 주택들은 바닷가와 산기슭에 흩어져 있다. 그래서인지 '웃춤'과 '아랫춤'으로 부르기도 한다.

삼두리는 1914년 이전까지는 두읍리라 불렀다. 지금은 왜소해졌지만 일제강점기 당시만 해도 김 양식으로 크게 번창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두읍리의 인구가 늘고 인근에 있는 삼장동이 쇠퇴하며 두 마을이 합쳐져 삼두리가 됐다. 삼두마을의 이름 중 '삼'자는 삼장동, '두'자는 두읍리에 따왔다.

마을의 유래는 조선 초기까지 올라간다. 조선 선조 때(1567~1608) 안씨와 유씨가 처음 터를 잡았다. 하지만 후손이 없어 대가 끊어졌고 숙종 때(1674~1720) 밀양 박씨가 이주한 이후에야 자작일촌으로 크게 형성했다.

이들이 자리를 잡았던 곳은 완도의 중심 상왕봉(해발 644m) 자락의 삼장골(삼장동)로 전해진다. 1896년 대한제국 칙령 제13호에 따라 완도군



삼두마을에 자리한 전남청소년수련원 인근에 펼쳐진 우리나라 최대 규모(57ha) 동백숲. 완도군은 40억원을 투입, 동백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주로 농사 위주로 크게 번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삼장동 주민들은 김 양식업을 하기 위해 산을 내려왔고 삼장동은 점차 쇠퇴해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삼장동 밑 바닷가에는 두읍리가 있었다. 1800년 대 이전까지는 노구미(바다가 육지 쪽으로 파고 들어온 지형을 뜻하는 순 우리말)라고 불리던 마을이다. 두읍리는 1855년 이후부터 불렀는데 '드름리'라는 속칭이 전해 내려온 것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마을 주위에서 자주 채취했던 두릅 나무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유서 깊은 역사만큼이나 별명도 많다. 예전 신당이 있었다고 해서 당계마을, 서당이 있어 서당골, 바닷가에 부두가 있어 선창이나 갯변, 개나리가 많다고 해서 꽃바구마을로 불리기도 했다.

삼두마을을 걷다보면 70~80년대의 어촌 모습이 떠오른다. 마을 남쪽에 자리한 쇠내미마을에는 언제 쌓았는지 알 수 없는 돌담이 처진 집들이 보이고 함석판으로 만든 창고문, 창호지문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마을 중심에 있는 한적한 분위기의 삼두저수지로 인해 물이 부족할 섬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도 큰 걱정이 없다. 마을 한 귀퉁이에 서있는 비석은 조선시대 오위장 박의중 선덕비다.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오위장이 조선시대 군사적인 오위의 으뜸 벼슬(종2품)에 해당하는 고위직인 것으로 미뤄 박의중이 마을 출신이거나 마을에 은혜를 베풀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의 주요 특산품은 김이다. 인근 바다는 통상적으로 수온 섭씨 18~20도에서 잘 자라는 김의 생육조건에 알맞아 매년 품질 좋은 김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삼두마을 앞바다에는 검은색 통을 실은 소형 바지선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 김 생산 시작시기이기 때문이다. 검은색 통은 김발을 물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둥이라고 불린다. 주민들은 10월 중순 김 채묘(김발 그물에 포자 불이기)를 시작하고 있으며 보통 40~50일이면 김을 채취할 수 있다. 채취 시기는 내년 5월초까지다.

삼두마을이 김 양식에 알맞다고 불리는 이유에는 태풍이 와도 큰 피해가 없는 자연 조건에 있다. 주로 육지 쪽에서 바다로 향하는 하니바람(서풍)이 사시사철 불기 때문에 바다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이 와도 피해가 심하지 않다. 지난 10월 초 태풍 '콩레이'가 덮쳤을 때도 김발 3~4개가 너울성 파도에 밀려갔을 뿐 큰 피해는 없었다.

김양식 어린 70% 정도가 피해를 입은 옆 마을 '당인리'와 대조적이었다. 또 김성돔이 잘 잡히는 숨겨진 낚시 명소이기도 하다.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던 삼두마을은 관광 활성화를 꿈꾸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이낙연 전 전남지사(현 국무총리)는 삼두마을을 찾아 동백을 활용한 지역 개발을 논의할 만큼 삼두리 동백숲은 소문나 있다. 천연 자생림인 삼두리 동백숲은 전남청소년수련원 인근 57ha의 면적에 펼쳐져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도군은 올해부터 40억원을 투입, 동백 치유의 숲과 전국 최대 규모인 200ha의 동백특화림 단지를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완도군 서쪽에 자리한 삼두마을은 예부터 깨끗한 환경에서 길러낸 김 양식과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동백숲이 유명하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원시림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동백숲. 바닥에는 푸석한 명석이 깔려 있어 오래 걸어도 힘들지 않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찾아오시는 길

- ▶승용차
  - 한남IC → 경부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동서천분기점) → 서영암IC → 영풍교차로(월출산, 성전방면) → 신제교차로(독천방면) → 해남교차로(완도, 해남방면) → 완도군 → 군외면 → 삼두마을
- ▶고속버스
  -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 완도터미널(5시간) → 완도터미널정류장 도보이동(1분) → 완도-남창행 버스 승차(25분 이동) → 삼두정류장 하차 → 삼두마을
- ▶열차
  - KTX용산역 → 광주송정역(1시간32분) → 광주송정역 정류장 좌석02번 버스 승차(40분 이동) → 광천터미널 정류장 하차 → 완도터미널(2시간20분) → 도공양터미널정류장 도보이동(1분) → 완도-남창행 버스 승차(25분 이동) → 삼두정류장 하차 → 삼두마을

## “하얀 겨울에 피는 정열의 동백... 한번 보면 못 잊습니다”

### 양한청 어촌계장

“우리 마을은 깨끗한 자연 환경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큰 동백숲이 있어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동백꽃이 피는 겨울이면 꼭 한번씩 들려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난 12월 만난 완도군 군외면 양한청(62) 삼두마을 어촌계장은 김양식으로 바뀐 일정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양 어촌계장은 “물김 양식은 보통 10월 중순 김발을 설치해 이듬해 5월까지 채취를 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바쁠 시기”라며 “물때를 맞추느라 새벽 3시에 일어나 보통 오후 2~3시까지 김발 설치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 수협 위판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다. 김 양식을 하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마을에도 활력이 생기고 있다.

대를 이어 김양식을 하고 있는 양 계장은 “힘들지만 좋은 김을 생산하고 있다는 보람이 있다”며 “우리 마을은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 바다가 깨끗해 품질 좋은 김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계장이 생산한 김은 수협 위판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다. 김 양식을 하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마을에도 활력이 생기고 있다.

양 계장은 “김 양식은 돈벌이가 좋으니까 20~30대 자제들이 대를 이어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나는 너무 힘들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자녀에게 권하고 싶지 않다”고 농담스레 말했다.

153명의 어촌계를 대표하는 양 계장은 마을 사람들 모두 풍족하게 살 수 있기를 꿈꾸고 있다.

“우리 마을은 김 양식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동백숲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백 치유의 숲’ 사업에 맞춰 방문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특산물 판매장 등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삼두마을이 완도 명품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김·툇 등 해조류 풍부하고 맛 일품...청년들 돌아오는 어촌



진도 굴포마을은 바다와 비옥한 토지가 주는 풍요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작은 어촌마을이다. 마을 주택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논·밭과 마을 앞 굴포나루(굴포항)의 모습이 아름답다.

### 삼별초 배중손 장군 최후 맞은 역사 아픔 간직 비옥한 토지에 인심 후하고 남도의情有 고사리와 함께 푹 우려낸 '줄복탕' 숙취해소 탁월

아무 것도 없는 적막함이 오히려 이 마을을 빛나게 한다. 흔한 카페도, 군것질거리를 접어들 구멍가게도 없었다. 지나가는 주민조차 몇 없는 작은 어촌마을. 고요한 굴포나루를 걷는 게 즐거웠고, 동그리니 안아 들어줬던 '줄복탕' 한 그릇이 진한 여운을 남겼다.

진도군 임회면의 '굴포마을'은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진도라는 섬 자체가 그렇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후백제의 군사들을 진도에서 격파했고, 원나라(몽골)에 항전한 삼별초 배중손 장군이 최후를 맞은 곳이 굴포마을이기도 하다.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도 진도는 왜군의 모진 침략을 견뎌야 했다. 임진왜란 당시 전략상 요충지인 진도에 상륙한 왜군은 약탈과 살인을 일삼았다.

진도는 예부터 유배지로 알려져 있다. 진도는 다른 섬들과 다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많고 섬 주변 수산물도 풍부했다. 유배를 당했다고 해도 다시 관직에 오르는 이들은 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뱃승, 섬놈이라는 천시에 온갖 고초를 겪었다.

각종 전란과 양반들의 전횡에 이곳의 사람들은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다. 남정네나 아녀자나 전쟁의 상처를 피해갈 수 없었다. 그렇게 쌓인 슬픔은 한 맺힌 '창'(唄)과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씻김굿'으로 승화됐다.

굴포마을 역시 동쪽과 남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지역으로 토지도 비옥하다. 마을 주민들은 주로 푼과 미역, 김양식 등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사도 짓고 있다. 대파와 볏동, 월동배추가 주작물이다.

'굴포'라는 마을의 이름도 일제시대 때 붙여졌다고 한다. 일본군은 마을 뒷산에 굴을 파놓았는데, 갯포기에 굴이 파여 있다는 뜻에서 굴포라는 지명으로 불리게 됐다고 전해진다.

후삼국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 수세기

에 걸친 한을 품고 있지만 주민들에게선 그런 모습은 볼 수 없다. 낮은 이방인에게도 살갑게 말을 건네주고, 음식도 후하게 내준다. 비옥함이 주는 넉넉한 남도의 정이다.

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것이 '배중손 사당'이다. 배중손은 삼별초의 지휘관이었던 장군으로, 아별초지유(夜別抄遺孀)들을 포섭해 1270년 삼별초 항쟁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진도로 남진한 후 진도정권을 유지하는 동안 수령으로 추대됐다.

당시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강렬하게 저항했던 삼별초는 정부 수립 3일 후 진도로 항전의 거점을 옮긴다. 진도에 용장 산성을 만들고 진도를 황도(皇都)라 부르며 장기항전을 벌였다.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의 공격을 수차례 버텨내던 삼별초는 1271년 5월 대군을 이끌고 출동한 여몽연합군에게 결국 패한다. 이때 배중손도 굴포마을 인근에서 전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배중손 사당에는 삼별초군을 호령하던 여몽연합군과 대항하던 배중손 장군의 동상이 근엄하게 서있다. 굴포항을 바라보며 서있는 배 장군의 동상 옆에는 늙름하게 뻗은 소나무 한 그루가 멋들어진 채 서 있다.

굴포마을을 방문하면 빼놓지 말고 먹어야 할 음식이 또 있다. 굴포나루(굴포항)에 있는 '굴포식당'이다. 이 식당은 '줄복탕' 전문점이다. 음식점은 허름하다. 음식 접인지 동네 구멍가게인지 정체를 모를 정도다. 작은 복어인 줄복(鰻鰻)을 우려낸 '줄복탕'만 팔고 있는데, 인근 지역에서는 이름난 맛집이다.

물건을 파는 공간과 주인이 거주하는 방이 떨어져있다. 이 주인이 살던 방들이 곧 손님들이 앉는 공간이다. 예전 가족들이 동그리니 둘러 앉아 식사를 하던, 꽃무늬가 화려하게 새겨진 밥상이 놓인다. 그 위로 온갖 젓갈과 각종 김치 등 밑반찬이 깔린다. 탕도 탕이지만 이 반찬들의 맛이 일품



물이 빠진 간조에 맞춰 굴포나루 갯벌에서 주민이 낙지를 잡고 있다. 굴포마을 인근 바다에서는 낙지와 줄복, 간재미 등 다양한 어종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



굴포마을 주민들은 바다와 땅이 주는 풍요로움에 감사함을 품고 살고 있다. 마을 인근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를 말리는 모습이 소박한 어촌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다. 진도 주민들의 밥상, 남도 서민들의 밥상을 짚자면 딱 이 집의 한상을 꼽고 싶을 정도다.

반찬을 맛보느라 밥 반공기를 비울 무렵 줄복탕이 나온다. 맑은 복지리(복탕)으로 해장을 즐기는 애주가들도 줄복탕을 맛보긴 힘들다. 줄복은 숙취해소에 최고의 음식으로 꼽힌다. 특히, 이 집의 줄복은 주인장이 직접 바다에 나가 잡아온다. 싱싱함은 말할 것이 없다.

독특하게도 굴포식당의 줄복탕은 맑은 형태의 다른 복탕과 모양새가 다르다. 고사리와 함께 푹 우려낸 이 집의 줄복탕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려냈는지 국물이 보얗게 올라왔다. 여기에 파를 듬뿍 넣어놓은 양념장을 더해주면 시원하고도 칼칼한 줄

복탕을 맛볼 수 있다. 일반 탕과 달리 국물이 진하고 점성이 있어 어죽과 그 형태가 닮았다. 주인장이 내오는 파김치를 곁들였을 때 맛의 정점을 찍는다.

윗마을과 아랫마을인 웃굴포와 아랫굴포를 비롯해 염밭이 있다고 이름이 붙은 염전, 도적들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도적굴, 서당이 있었다고 붙여진 서당굴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찾아오시는 길

#### ▶승용차

한남IC → 경부고속도로 → 논산천안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서영암IC → 호동교차로(하원 방향) → 녹진교차로(진도타워 방향) → 진도군 → 임회면 → 굴포마을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 진도공용터미널(4시간40분) → 진도공용터미널정류장 도보이동(1분) → 팽목, 서망행 버스 승차(36분 이동) → 굴포

마을 정류장 하차 → 굴포마을

#### ▶열차

KTX용산역 → 목포역(2시간15분) → 목포역정류장 200, 1A, 1-2버스 승차(13분 이동) → 버스터미널정류장 하차 →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도보이동(6분) → 진도공용터미널(1시간10분) → 진도공용터미널정류장 도보이동(1분) → 팽목, 서망행 버스 승차(36분 이동) → 굴포마을 정류장 하차 → 굴포마을

### "바다와 땅이 주는 넉넉함에 늘 감사한 마음 젊은이들 많아 활력 넘치는 어촌 꿈꾸지요"

#### 김재명 어촌계장

"청년들이 돌아오는 어촌, 활력이 넘치는 어촌으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재명(75) 굴포마을 어촌계장은 굴포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다. 언제부터 바닷일을 했는지 가능하기도 어렵다. 군에 입대해 군생활을 했던 3년을 제외하고는 늘 바다에서 놀았고, 바다에서 일했다.

김 계장은 "풍요로운 바다와 비옥한 땅이 있는 굴포마을 주민들은 이웃들과 나누고 주고받는 정을 가지고 있다"며 "내 세울 만한 게 없는 마을이지만 따뜻한 마음만큼은 최고다"라고 말했다.

굴포마을 어촌계장은 63가구 200여명으로 이들은 주로 멸치잡이나 푼, 미역, 김을 양식을 하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 인근 바다는 영양염류가 풍부해 김과 푼 등 해조류의 품질은 물론, 맛도 뛰어나다. 최근에는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마을로 돌아오면서는 '밭농사도 제법 이뤄지고 있다. 농촌지역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 놓고있던 땅을 청년들이 돌아와 다시 일구면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는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던 청년들이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며 "다른 농어촌마을과



다르게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굴포마을 주민들은 특별한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작은 어촌마을이지만 바다와 땅이 주는 넉넉함에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다.

김재명 계장은 "우리 주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은 그 누구에게도 뒤쳐지지 않는다"며 "굴포마을 김과 푼, 미역을 비롯한 수산물과 농산물 애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산수가 아름다운 어촌 ... 바다·갯벌엔 해산물 풍부

주민 117명·어촌계원 21명  
어가 연 소득 최대 2억원  
운림산방·신비의 바닷길  
세방낙조·서망항 등  
모두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진도대교와 진도읍을 지나 남쪽으로 30여분을 차로 달리면 나타나는 진도군 임회면 남선마을. 무더위가 가시고 오후에도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8일 오후 마을을 찾았다.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동령개 시비가 서있고 그 오른쪽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랑하는 굵은 팽나무가 10여그루 서있다. 나무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앞으로 보니 U자형 해안의 왼편에는 동령개 포구가, 오른쪽은 아트막한 산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발 아래로는 조약돌 해변이 멀리로는 수평선이 펼쳐져 있다. 나무 주변에서는 향긋한 꽃내음이 온 몸을 감쌀 정도로 물씬 풍겨나온다. 전망도 향기도 말 그대로 일품이었다.

이처럼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품었지만 마을사람들은 눈과 발 그리고 갯벌과 바다를 터전삼아 삶을 이어간다. 관광객들이 밤이면 찾아들 숙소도 변변한 식당도 마땅치 않다. 지금은 외지인들이 그저 이 곳 바다에서 잠시 낚시를 하거나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갈 뿐이지만 수려한 경관을 무기 삼아 관광산업을 일으킨다면 그 전망은 결코 어두워보이지 않는다.

마을 어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1800년경부터. 밀양 박씨 사람들이 처음 마을로 들어왔고 50여년이 지나 김해 김씨 사람들이 옮겨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한다. 임회면의 남쪽, 산수가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남선마을이라고 한다. 마을 포구는 동령개로 불리며 인근 주요 포구로는 서망항, 팽목항이 있다.

마을에는 117명의 주민이 산다. 여느 어촌 마을처럼 젊은이보다 연세 지긋한 노인들이 절대 다수다. 19세 미만 청소년이 14명, 20-65세 미만 청장년이 40명, 65세 이상 어르신이 63명이다. 이 가운데 어촌계원은 모두 21명이다. 어촌계원을 제외한 주민들은 대개 벼농사를 짓거나 밭에 대파, 고추, 콩 등을 심고 거둬들여 생계를 꾸려간다.

어촌계 규모는 작지만 마을 앞 갯벌과 바다는 나오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알차다. 어촌계 대표 상품으로는 멸치, 홍새우, 다시마, 미역이다. 생물거리는 거의 하지 않고 말려서 위판장이나 도매상인들을 통해 유통한다. 멸치는 5-11월까지 나고, 홍새우는 7-8월을 제외한 사시사철 생산된다. 다시마와 미역은 양식장뿐 아니라 자연산도 채취한다. 어촌계원들은 전북치폐도 양식해서 완도 등 전국 양식장으로 출하한다. 이 마을 어촌계장 김철오(61)씨 설명에 따르면 자연산 톳, 전복, 해삼, 굴 등 해산물이라는 해산물은 전부 나온다고 보면 된다. 어가별 연간 소득은 2000만원 안팎부터 최대 2억원까지 격차가 크다.

남선마을 주변에는 이름난 관광지, 명소가 적지 않다.

운림산방, 세방낙조, 신비의 바닷길, 꽃계 산지로 유명한 서망항 위판장이 있는데 모두 승용차로 30분 안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운림산방은 조선 시대 말 남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 말년에 기거하던 화실이다. 운림산방이란 이름은 절철산 주위



하늘에서 내려다 본 진도군 임회면 남선마을 방파제.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에 수많은 봉우리가 어우러진 깊은 산골에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구름 숲을 이룬 모습을 보고 이름지었다 한다.

세방낙조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는 다도해의 경관은 압권이다. 해질 무렵 섬과 섬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일몰의 장관은 주위의 파란 하늘을 단풍보다 더 붉은 빛으로 물들인다. 세방낙조 주변 해안도로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다도해 드라이브 코스로 꼽힌다.

전국 꽃게 생산량의 25%를 담당하는 서망항 위판장도 마을에서 승용차로 10여분 거리다. 매년 10월이면 서망항 위판장에서 꽃게 축제가 열린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어촌계장 김철오씨 부부가 고기잡이배에서 잡은 바닷고기와 새우 등을 내리고 있다. 김씨 부부는 홍새우를 직접 건조해서 판다.



진도군 임회면 남선마을 팽나무 동산은 진도에서도 전망이 좋다고 손꼽히는 곳이다. 벤치에 앉으면 왼쪽으로는 방파제와 포구가 오른쪽으로는 산이 있고 정면으로는 바다가 펼쳐져있다. 차를 몰고 팽나무 동산 코앞까지 갈 수 있는데 불과 초가을이라면 차량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아생화 냄새가 끝내준다.

## “우리마을 귀어 3년이면 도시생활보다 훨씬 나을거요”

### 김철오 어촌계장

“이대로 20년, 아니 10년만 흘러도 우리 마을은 물론 전국의 어촌에서 사람 구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어 하려고 문을 두드리는 젊은이들이 한 둘이 아닌데 모든 걸 귀어인들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안 됩니다.”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 남선마을 어촌계장 김철오(61)씨는 귀어 희망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씨는 “우리 어촌계의 경우 3년간 거주하면 누구나 계원으로 받아들인다. 크든 작든 배를 구입하고 어업면허를 갖춘 뒤 몇달만 어민들과 함께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일을 배운다면 도시생활보다 더 나은 생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왜 그렇게 귀어에 대해 강조하느냐’는 물음에는 “젊은 이들이 돌아오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일단 마을이 활기를 띠고 생각이 감돌 것 아니냐. 그리고 누군가는 바다와 갯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김씨도 사실은 귀어인이다. 누구보다 귀



어 초반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잘 알고 있지만, 몇 년 살아보니 겁내거나 못할 일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남선마을에서 나고 자라 성인이 된 이후 인천에서 건축업 등을 하며 청장년기를 보내고 지난

2008년 가을 고향마을로 내려왔다. 몸과 마음이 지친데다 고향에 계신 노부모를 더 늦기 전에 찾아가 보살펴야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이 함께 작용했다.

귀어 첫 해 그는 조그만 낚싯배를 사들였다.

낚시꾼들을 갯바위에 내려주거나 선상 낚시를 시켜주며 소득을 올렸다. 아내와 함께 낚시용 고기를 잡아 위판장에 팔기도 하며 귀어 첫해에만 2000만원 가량 소득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다 이웃의 새우잡이, 멸치잡이, 미역·다시마 양식일을 도우며 어깨 너머로 일을 손에 익히면서 범위를 점차 넓혀갔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홍새우와 멸치 등 각종 물고기, 미역·다시마 양식 등을 하며 연간 1억원 이상의 고정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지난 9월 8일 오후 마을 앞 방파제에서 만날 당시 어촌계장 김씨는 아내와 함께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홍새우 4상자(10kg), 간제미 10여마리, 점상어, 복어 등 잡어 수십마리가 4t짜리 고깃배에 실려 팔딱거렸다. 그는 “태고도 20여년간 바다로 나가 오후 3시가

지 그물로 잡은 게 이 정도”라며 “뺨이 좋아 그런지 고기만 고기, 미역·다시마 양식이면 양식,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마을 앞바다는 언제고 넉넉하게 되돌려 준다”고 자랑했다.

그가 계장으로 있는 어촌계원은 모두 21명.

가장 젊은 축이 50대, 어촌계원 대부분은 60-80대로 연로했다. 고깃배 없이 맨손 어업만 하는 경우는 없고 저마다 배를 가지고 바다를 터전 삼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그런 어촌계에는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소망이 있다.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방파제 대신 수심이 좀 더 깊은 바다로 좀더 깊게 쪽 뺨은 새로운 방파제를 갖는 것이다. 어촌계장 김씨는 “어촌에 투자하는 것은 가깝게 보면 현재의 어민들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지만 좀 더 크게 멀리보면 귀어인 유인책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고령화되는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찾아오시는 길

- ▶ 승용차
  - 한남IC → 경부고속도로 → 논산천안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서영암IC → 호동교차로(화원 방면) → 녹진교차로(진도타워 방면) → 진도군 → 임회면 → 남선마을
- ▶ 고속버스
  -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 진도공용터미널(4시간40분) → 진도공용터미널정류장 도보이동(1분) → 팽목, 서망항 버스 승차(1시간6분 이동) →

- 남선리정류장 하차 → 남선마을
- ▶ 열차
  - KTX용산역 → 목포역(2시간15분) → 목포역정류장 200, 1A, 1-2버스 승차(13분 이동) → 버스터미널정류장 하차 →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도보이동(6분) → 진도공용터미널(1시간10분) → 진도공용터미널정류장 도보이동(1분) → 팽목, 서망항 버스 승차(1시간6분 이동) → 남선리정류장 하차 → 남선마을